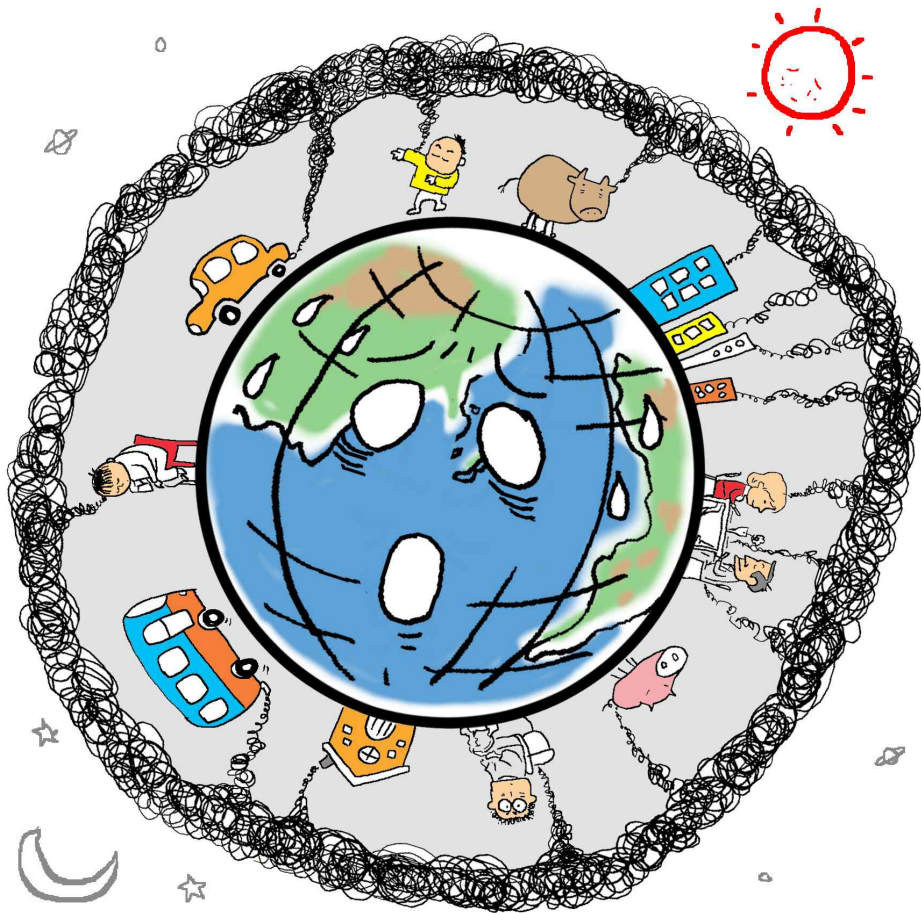


단원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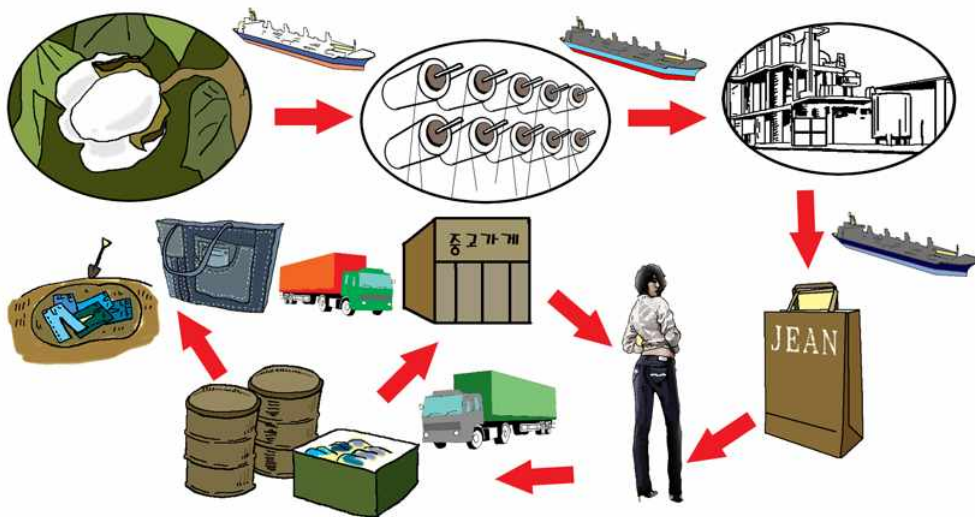
IV. 사회생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기후변화는 우리들의 의, 식, 주 및 여러 생활에서 연관되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상 생활 및 사회생활과 연관하여 기후변화의 원인, 현상,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방법을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모색하고, 친환경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월별로 12개의 테마별 주제를 선정하고, 한 달에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이 실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용을 편성하였다.



알아보기 ≡ 청바지의 생애

청바지의 원료인 목화 주요 재배 지역은 미국, 중국, 인도 등이다. 목화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며 전 세계 살충제와 비료 소비량의 10%가 목화 재배에 이용된다. 선박을 임금이 싼 지역으로 이동된 목화는 청바지 원단으로 태어나게 되고,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청바지 원단을 염색하고 부드럽게 하거나 광택을 낸다. 이렇게 생산된 청바지는 포장되어 우리나라로 운송되고 도매상을 통해 공급된다. 우리는 이렇게 긴 여정을 거친 청바지를 옷 가게에서 구입한다. 청바지를 구입하여 어느 정도 입은 후에는 세탁을 하며, 낡은 청바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헌 옷 수거함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청바지의 생애를 통해 발생하는 탄소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 녹색성장 실천 목표

우리의 일상적인 의생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의생활 실천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 이동엽 외 5인(2009). 초등학교 기후변화의 이해.
- 환경부(www.me.go.kr)

1. 과거의 의생활

우리 조상들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삼베나 모시로 만든 옷을 입었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무명이나 비단으로 만든 옷을 겹쳐 입었다. 이러한 옷감은 주로 식물에서 채취한 천연 섬유로 환경 친화적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 사회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황토, 숯, 감, 치자 등의 천연 염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깔의 옷감을 만들어 입는 환경 친화적 의생활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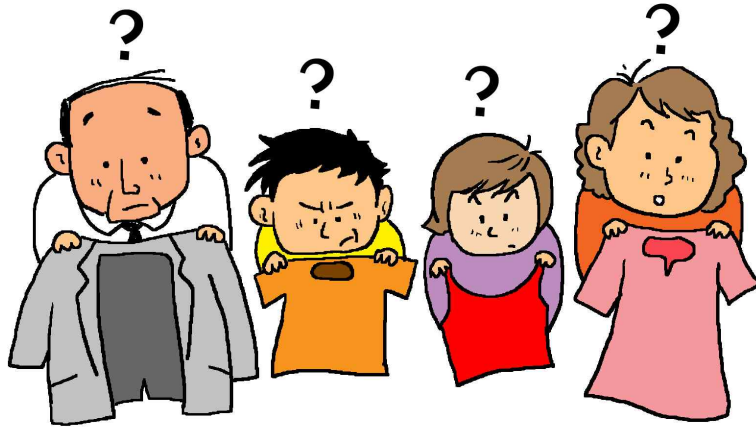
2. 오늘날의 의생활

오늘날에는 대량 생산, 대량 유통이 이루어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의복 형태보다는 합성 섬유로 만든 의복 형태가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세탁이나 구입이 편리한 반면에, 자연에서 원료를 구한 천연 섬유보다 자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합성염료,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물이 오염되고, 과소비로 버려지는 옷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량생산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기체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지속 가능 패션(sustainable fashion)

환경 보전 운동에 대한 지지층이 폭넓게 형성되면서 폐기된 물건을 재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지속 가능 패션’이 널리 퍼지고 있다. 지속 가능 패션은 천연 소재를 사용하거나 재활용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옷을 말한다. 공정 무역을 통해 생산된 의류가 지속 가능 패션의 예이다.





1.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조사해보자.
 - 가. 계절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은 몇 벌 정도인가?
 - 나. 그 중 내가 입는 옷과 입지 않는 옷은 각각 몇 벌 정도 인가?
 - 다. 옷 세 벌을 선택하고 그 옷이 무슨 섬유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해보자.
2. 가족들이 각자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입는 옷과 입지 않는 옷은 평균 몇 벌씩인지 조사해보자.
3. 섬유 종류를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으로 구분해 보자.
4. 입지 않는 옷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가족끼리 의논해보자.
5. 입지 않는 옷이 재활용되지 않을 경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해보자.

천연염색은 말 그대로 화학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염료를 이용하여 옷감에 물을 들이는 방법이다. 자연 염료로는 숯, 황토, 치자, 감, 쪽 등이 자주 쓰인다. 가정에서는 주방에서 쓰고 남은 재료를 재활용하여 천연염색을 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여름철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양파껍질, 포도껍질, 떨어진 감 등을 재활용하면 훌륭한 자연 염료로 사용할 수 있다.

양파 껍질로 염색하기

1. 모아둔 양파 껍질에 물을 붓는다. 물은 양파 껍질 1대접에 3대접 정도가 적당하다. 양파 껍질 1대접으로는 손수건 2~3장을 염색할 수 있다.
2. 양파 껍질이 담겨 있는 물을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인다.
3. 체에 베 보자기를 깔고 끓인 물만 따라낸다. 그 뒤 양파 껍질 건더기는 1~2회 재탕한다. 그리고 끓인 물을 계속 먼저 끓인 물과 합친다.
4. 색이 우러난 따뜻한 물(50~60℃)에 염색하고자 하는 옷감을 20분간 담그고 자주 뒤적여 준다.
5. 그 뒤 맑은 물에 여러 번 행군다. 양파 껍질로 염색을 하면 옷이 노란색으로 물든다.
6. 염색을 다한 뒤 그늘에 말린다. 만약 좀 더 진한 색을 원한다면 같은 과정을 1~2회 반복한다.

